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발행인: 김태근 베드로 주임신부 / 편집: 홍보분과
주소: 교육관•사제관: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전화: (302) 998-7609
Homepage: www.delawarekcc.org / Email: delawarekcc@gmail.com

2019 년 8 월 18 일(다해)

연중 제 20 주일

[입당송] 시편 84(83),10-11 참조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제 1 독서] 예레 38,4-6.8-10

[화답송] 시편 40(39),2 ㄱㄴ.2 ㄷ-3.4.18(◎ 14 ㄴ)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 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 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
○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

[제 2 독서] 히브 12,1-4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 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루카 12,49-53

[영성체송] 시편 130(129),7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435	510, 512	158, 165	478

미사전례							
날짜	전례력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예물봉헌	친교
8 월 18 일	연중 제 20 주일	박상진	서영복	이명근	서영복, 이명근	윤우식, 한 수	서행부 요셉가정
8 월 25 일	연중 제 21 주일	윤성숙	이정인	김승희	김혜원, 김태현	최은화, 전지윤	전체 친교
8 월 31 일	연중 제 22 주일	김승희	양재련	양현주	양재련, 양현주	강지유. 민서 Dickenson	베드로회

해당일전주 미사후와 해당일 미사 30 분전에 교육있으니 꼭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

하느님은 부족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부족한 저를 사제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끄셨을까?

에피소드 1 - 당신의 자녀로 이끄시는 하느님

태어난지 3 개월 된 갓난 아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갓 태어나서 갓난인데 어쩌면 전 막 나아서 막난 아이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3 월에 태어나 6 월에 세례를 받았으니.

3 월에 태어났기에 보편적으로 요셉이라 세례명을 지어야 겠지만 6 월에 세례를 받아서인지 베드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릴적엔 솔직히 베드로라는 이름이 불만이었습니다. 주변엔 요한이 많았는데 요한은 무척 샤프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반면 베드로는 1 차 산업에 종사하는 다소 우직하고 딱히 매력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제게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만의 배신으로 큰 인물이 된 사도 베드로는 저의 영원한 우상이지요. 왜냐하면 저는 30 번 300 번도 모자라 자주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여하튼 간에 성당에 이끌리게 된 것은 1983 년 국민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에피소드 2 - 성당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그런데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 주일학교에 넘겨졌는데 아 글쎄 극성 맞은 우리 엄니가 그만 시작부터 꼬이게 만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학교에서는 1 학년에 재학중인데 성당 주일학교에서는 2 학년으로 위장전입을 시킨 것이지요. 과연 무슨 꿍꿍이가 있었을까요? 실수라 하기엔 그 어떤 음모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3 월 10 일 생입니다. 음력으로 치면 2 월 10 일이니 이 정도면 7 살에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질 못하고 꽉 찬 나이에 학교에 입학했으니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동안 너무 못마땅 하셨나 봅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셨더라면 일찌감치 학교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는데..실제로 제 동기중에는 저와 1 년 1 개월 차이 나는 한 살 어린 4 월생인데도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으니 억울할 만도 하지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튼 저는 엄마의 극성인지 사랑인지 땜에 학교에서는 1 학년, 성당에서는 2 학년의 이중생활을 해야만 했던 간첩 인 듯 간첩 아닌 간첩같은 숨 졸이고 살아야했던 유년기가 있었답니다

허나 이 불편한 관계를 나름 정리할 기회가 생겼으니 뭘까요? 그것은 다름아닌 이사를 가는 것이었지요.

에피소드 3 - 새로운 환경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국민학교 5 학년때 경기도 복사골 부천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것도 양귀자씨 소설로 유명한 원미동 사람들로 새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처음부터 원미동으로 간 것은 아니었으나 유일한 기억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국민학교 6 학년 이후로는 원미동에 터를 닦게 되었습죠.

참 집은 이사를 갔다지만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름지기 핵교는 한양을 나와야 한다는 견에 따라 어린 나이에 자그마치 12 살의 나이에 전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며 1 시간이 넘는 통학생활을 햇수로 4 년 만 3 년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조기 유학이 중요한 것처럼 그때에 장시간 통학으로 시간을 보내기 보단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더라면 우리 나라에 노벨 수상자가 나올 수도 있었을텐데

제가 공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합리화할 물증 아닐까요?

여튼 집은 이사를 갔고 학교는 그대로고 자 그렇다면 과연 성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당도 얼마 채 지나지 않아 옮기게 됩니다. 어쩌면 제 신앙의 초석을 다지게 될 그 원미동 성당으로

에피소드 4 - 신앙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국민학교 6 학년 그리고 중학교 1,2 학년 여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이 시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니 참으로 소중했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조하문, 변진섭, 이상우, 이상은 등 대중가요가 한창 활기를 띠던 그 때 그 시절.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아이폰이 없어도 성당에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고 형들이 하는 브레이크 댄스에 심취하며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목청껏 따라 부르던 그 때 그 시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다니던 성당의 주보성인이 루르드의 성모였는데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중학교 레지오가 있었습니다.

왜 적절한 경쟁은 서로를 더욱 발전시킨다 했던가요?

아사다 마오와 김연아
스티브잡스와 빌 게이츠
나훈아 와 남진
김태근 과 조인성 (이건 아닌가?)

여튼 여러 라이벌들과의 "레지오 활동 보고시간"은 감동을 넘어 유쾌, 통쾌의 시간이었습니다.

김태근 베드로 활동보고 하겠습니다. 칠판 지웠습니다. 휴지 주었습니다는 기본이고. 묵주기도 몇 단 했습니다에 매 주마다 과열 경쟁이 붙었는데 60 단은 기본이고 과열 경쟁으로 인해 성당 가는 그 짧은 길에서도 묵주알을 돌리느라 정신이 없던 적도 있었답니다.

어릴 적 저는 정말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실어했느냐 하면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를 바칠 때면 "왜 기도를 강요하느냐?"하며 마지못해 했고, 무릎꿇기 힘들어 하는 제 모습에 아버지께서는 그럼 엎드려서라도 기도하라 하시기에, 난 늘 마치 이슬람교도들이 알라신을 향해 절하는 것처럼 넙죽 엎드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제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느님께서 그런 또래간의 경쟁으로 절 인도하셨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전히 서울의 성당을 다녔더라면... 글쎄요 과연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형성되었을까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것은 조금 놓쳤을지 몰라도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리잡지 않았나 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그 때 그 원미동 시절에 배웠던 것을 고등학교 때 그리고 신학교 휴학 후 인도로 봉사활동을 하던 때에 써먹었던 것을 생각하니 그 때 거기에 있었던 것은 그냥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무엇을 써 먹었는지는 차차 밝히기로 하고.....다음 시간에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소식

2019년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사목지침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 **가족 전례 및 친교 봉사:** 오늘 8월18일 가족 전례 및 친교 순번은 서행부 요셉가정입니다.
가족 친교 봉사 준비 대행 서비스 (도넛 또는 빵, 다과구입) 가능하니 총 구역장 김신희 미카엘라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3-3608

■ **성모승천대축일미사:** 콩국수친교 준비해주신 민병묵 스테파노•이명자 제노베파가정과 봉사해주신 마르타회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8월31일 주일미사(김태근 베드로 주임 신부님 송별미사):** 베드로회 (주요리), 박춘분 스텔라가정 ($100), 양재련 스테파노 가정 ($100), 배덕효 안드레아 가정 (음료, 과일) 준비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분과 :** 8월부터 주일미사전 청소년 친구들 복음서 읽기와 기도문 공부가 시작 됩니다. 주일 아침 10시 25분까지 St. Paul.성당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 **Backpack blessings:** 8월 31일 미사때 청소년 친구들 새학년 Backpack blessings을 진행하려 합니다. 청소년 친구들 8월 31일 미사때 새학년때 사용할 Back pack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 **평일 미사:** 8월에는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새로오신가정 환영합니다:** 최진호•장율리아 가정 (5구역 배정) 이재헌•정소희 율리아나 가정 (1구역 배정)

■ **St. Paul's 성당 청소:** 8/25: 2구역, 9/15: 3구역, 9/29: 4구역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이만옥 베드로, 김춘배 모니카
생미사	김나영 쥴리안나, 김태근 베드로 신부님, 웰밍톤 성 스테파노 한인 공동체 꾸르실리스따, 김치영 라우렌시오, 김신희 미카엘라, 유진희 글라라, 조원준 리차드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258,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봉헌금:** $519

교무금: 강영길 7, 8월, 강일호 4~8월, 박기승 7, 8월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장 이상헌 요한 ☎ (302) 893-4569, 부분과장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893-8002 님께 **수요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 Check 일 경우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c. (KCC)로 기입하시고, 교회 헌금은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주일미사	주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평일미사	4, 5, 6, 9, 10, 11 월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R.C. Church,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교육관 성당		
성시간	평일 미사 있는달 첫째주 수요평일미사때 St. Paul's R.C. Church		
성서 100 주간 모임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 교육관 성당		
레지오 마리애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성당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성당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4, 5, 6, 9, 10, 11 월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평일미사후 교육관 성당		
Youth Group 모임	주일미사전 St. Paul's 사제관 2 층		
고해성사	미사 전	봉성체	신청시
유아세례 및 축성	신청시	혼인면담	신청시
Salisbury 공소미사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Holy Redeemer (Church Bi-State Blvd. at Chestnut St. Delmar, MD21875)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사목회장: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전례분과: 이상헌 요한•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998-7609	☎ (215) 313-8854	☎ (302)893-4569, ☎ (302) 893-8002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